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셨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2월 16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최룡해동지, 리영길동지, 장정남동지, 변인선동지, 서홍찬동지, 김수길동지, 량철성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승리의 신심

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광명성절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차넘치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승업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

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앞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에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에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또한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맹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순간도 잊지 않고 전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명군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며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길에서 영원히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만을 충직하게 받드는 참된 총대전우로 살며 투쟁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 0048호

주제 103 (2014)년 2월 15일 평양

###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에게 군사칭호를 수여할데 대하여

선군조선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광명성절을 뜻깊게 맞이하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장군님의 빛나는 혁명생애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되새겨보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주시대의 완성된 지도사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특출한 조직적수완과 세련된 령도로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철통같이 다지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존엄높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면시키시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한 드높이지 않는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지니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우리 인민군대를 당에 무한히 충실한 불패의 혁명강군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시였다.

현시기 인민군지휘성원들앞에는 전군에 당의 유일적명군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군력강화에 최대의 박차를 가하여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총대로 믿음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인민군지휘성원들이 당과 인민의 신임과 기대를 심장에 새기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으면서 군사칭호를 다음과 같이 수여할것을 명령한다.

- △ 상 장
- 김락겸
- △ 중 장
- 운동현 박영래 우철 강리원 최신욱 리금형 박춘봉 림광웅
- △ 소 장
- 성학철 구광서 고운봉 김철호 최두용 정도호 장병현 박 일 주성남 리영건
- 리완식 김광일 김덕호 김룡호 한광철 김정봉 배은철 김순길 주항건 김제운
- 김철수 리수일 정의선 박성찬 김시복 리호영 김동철 김의준 황산천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72돐 경축 중앙보고대회 성대히 진행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72돐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1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장인 평양체육관은 천재적인 예지와 탁월한 사상리론활동,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조국을 일심단결된 불매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여 강성번영의 역년기들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휘날리는 붉은 기록에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 모형과 《탄생 72돐》이라는 글발이 걸려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선군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대회에는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혁명렬사유가족들, 공로자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광명성절경축 제일본조선인대표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대표단들과 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가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는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 무관들이 초대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우렁찬 박수소리가 터져올라 장내를 세차게 진감하였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 리영길동지, 장정남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박도훈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강석주동지, 김원홍동지, 김영일동지, 김평해동지, 박범기동지, 최부일동지, 김창섭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영웅들, 접견자들, 당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공로있는 일군들, 로력혁신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홍인홍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최은복 재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이 주석단에 나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가 중앙보고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민족해탈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

을 담아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다.

그는 나라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김일성민족이 이 하늘아래에서 대대손손 번영해나갈수 있는 만년터전을 마련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주체조선의 영상으로 언제나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시며 어버이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자는 백두산대국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흐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어버이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선군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대회는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김정은동지께

각하  
나는 김정일령도자각하의 탄생 72돐이 되는 2014년 2월 16일을 각하와 함께 경축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그리고 각하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14년 2월 13일

디마스꼬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가족, 스위스조선위원회, 일본의 단체와 인사가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가족, 스위스조선위원회, 일본 미야기현일조우회 친선협회와 에히메현대조선문제연구소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 중국 심양 조선경제무역투자자문유한공사 리사장 일행이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제18차 김정일화축전에 참가하고있는 중국 심양조선경제무역투자자문유한공사 리사장과 일행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리선생리사장이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 하였다.

본사기자

### 1번에서 계속

백두밀림에 차넘치던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결사용위정신과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이 지녔던 혁명적수령관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사상과 신념으로 따르고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어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가장 진실하게, 가장 철저하게, 가장 완벽하게 실현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전당과 온 사회에 꼭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백두산대국의 국력을 천백배로 다지고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기 위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아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과업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다. 우리는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지!》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총진군의 북소리를 힘차게 울

리며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과학기술부문이 앞장에서 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나가며 그 봉화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여야 한다.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높은 생산적양양과 현대적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가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고 일관을 벌리며 부당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과감히 뚫고 나가야 한다.

김정일애국주의는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빛이며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을 심장깊이 새기고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머문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열렬한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식으로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국가,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뚜렷한 애국의 자욱을 새겨나가지야 한다.

당령의 령도밑에 거창한 창조와 변혁이

일어나고있는 오늘날의 시대는 그 어느때보다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총동원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당조직들에서는 오늘날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사상사업을 열고 사상전, 선전선동의 준비를 일으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그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과 승결과 보복을 같이하고 운명을 함께 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일대 사상전을 벌려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대비약적혁신이 피리를 울리고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각종 당조직들에서는 혁명적적지,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활기있게 진행해나감으로써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한생이 어려있는 혁명의 붉은기가 승리의 기치로 나뭇기고 있으며 백두의 기상으로 약동하는 선군조선의 앞길에는 끝없이 밝고 찬란한 미래가 펼쳐지고있다.

모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백두에서 개척된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지.







#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

오늘 우리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존엄과 더불어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이 만방에 힘있게 떨치고 온 겨레가 이북의 적극적인 북남관계개선소에 화답하여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한 거족적행진에 용감 떨쳐나서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고있습니다.

은 거레와 진보적인 공동의 명철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반제 민족민주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다함없는 경의를 담아 위대한 선군태양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주체 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시대와 거레의 촉박속에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솟아오르시어 력사 에 전무후무한 대공적을 쌓으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는 애국, 애족, 애민의 거룩한 자옥으로 찬란히 수놓아져있습니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저지와 불타는 열정,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더욱 풍부화 하였고 심화발전시키시어 우리 겨레가 자주민족, 강성민족으로 존엄 떨칠 수 있는 항도적지침을 안겨주시고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의 앞길을 활히 밝혀주셨습니다.

위대한 주석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이북의 당과 국가, 군대를 강력한 불패의 대대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 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시였으며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치 높이 강성국가건설의 전면적개화기를 펼치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선군장군과 애국헌신에 의하여 공화국은 자주의 성세, 사회주의 의 부로로 세계만방에 찬란한 빛을 뿌릴수 있었습니다.

민족분열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한평생 온갖 고로고와 실험 을 바치시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은 거레와 인류가 《조국통일의 리정표》, 《자주통일의 실현 강령》으로 공인하는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탄생도, 삼천리별 진감시켰던 우리 민족끼리시대의 벅찬 환희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통일지와 출중한 지략, 탁월한 령도와 대해같은 포용력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었습니다.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로 21세기의 정치흐름을 주도하시어 세계 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시고 인류자주위업실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오늘도 회세의 정치선로, 위인중의 위인으로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민족에 대한 숭고한 사랑감을 지니시고 령도의 계승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시어 민족의 밝은 앞날과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여념초소를 다져놓으신 것은 시대와 력사앞에 쌓으신 위대한 업적입니다.

위인이 지닐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 정력으로 민족의 승리를 위한 전진을 앞당기신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혁명생애는 사상도 령도도 막강도 장군님그대로서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의하여 즐기차 게 이어지고있습니다.

한없이 순결무한 영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에 출현한 태양의 승지로, 수평영성의 대기비로 가장 숭엄있게 훌륭히 꾸리며 어버이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들을 정중히 모시도록 이끄시어 이북의 군민이 영원히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사는 무한한 행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계승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제시하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유일적정도체제가 확고히 선 강철의 전투대로로, 사상순결결성과 공교성에 있어서 최상의 위치에 이른 혁명적당으로 비상히 강화발전시키셨습니다.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자옥이 새겨진 최전연초소와 부대들을 끊임없이 찾고있으시며 군민들의 가슴마다에 승리의 확신과 멸적의 기상을 안겨주시어 널리 횡포해지는 미국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밟게하시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에서 우리 이남민중과 온 겨레는 오늘도 조국수호전에 계시는 장군님의 거룩한 영상을 뵈고있습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고매한 민중관을 철저히 구현하시오! 전체 이북군민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김정일대국주의를 심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이 찬란한 현실로 꽃피는 가운데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한 시대의 거창한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이북의 방방곡곡에서는 북반은 민중의 웃음과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 퍼지고있습니다.

은 나라 민중을 한복에 안아 후더운 육친의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의리와 한없이 넓은 덕망속에 이북은 령도자와 군민이 뜻과 정을 함께 하고 사상과 의리로 굳게 뭉친 하나의 대가장, 그 누구도 깨뜨릴수 없는 일심단결의 대강국으로 더욱 위용떨치고있습니다.

조국통일 최대의 애국으로 간주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지략으로 과학적인 통일방략들을 제시하시고 넓고선 도량과 중대결단으로 온 겨레를 힘있게 고무추동하시어 남북공존선언이념으로 불리워지고계십니다.

지금 우리 이남민중은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조국통일의 용지를 밝혀주신대 이어 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통해 남북관계개선 의 활로를 열어주시는 애국의 결단과 과감한 추진력 에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하나된 조국을 안겨주시는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나갈 때 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불변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있습니다.

실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버이장군님께서 물려주신 이북의 당, 군, 인민이 이끌어오신 기간은 만만치않은 시련을 겪어오신 기간이 몇대도 걸 쳐서도 이북하지 못할 거대하고 경이적인 업적중의 대업적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이북의 모든 선진구들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한것은 원수님의 령도따라 이북을 영원한 태양조성으로 빛내어나가려는 이북민중과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열렬히 추앙하는 온 겨레의 지향과 궁지로 높이고있으며 원수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대원수님의 조국통일유혼을 기필코 실현하고있어야 한다는 결의에 찬탄되어 있습니다.

하기에 2월의 정기와 기승 넘치는 뜻깊은 명절의 이 아침 우리 반제민족의 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가슴가슴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령수로, 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신 무상의 영광과 궁지로 높이고있으며 원수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대원수님의 조국통일유혼을 기필코 실현하고있어야 한다는 결의에 찬탄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은 영원히 온 겨레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억척의 기둥으로 세우고 언제나 대원수님들께서 영성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에 우리들며 충정일로를 걷는 남녘의 해마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반제민족을 그 어떤 모진 광풍이 몰아닥쳐도 해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어주신 자주의 계도로에서 한치의 팔정도 모르는 열철의 통일대로로, 원수님의 조국통일구상을 앞장서서 받들어나가는 강철의 통일결사로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철의 조국통일구상과 의지를 받들어 전진문을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 공개서한관철에 힘있게 불리워지고 반전평화의 기치높이 내외 분열주의세력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파란시키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파견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문제로 력사적인 천륜을 남기신 20년은 때로 뜻깊은 유배를 받던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국면 을 여는 해로 빛내이는데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병은 조국통일과 민족만대번영의 결정적 담보이며 우리 남녘민중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반제민족민주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 민중의 한결같은 열철을 모아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통일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반제민족민주진선 중앙위원회**  
주제103(2014)년 2월 16일 서 울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중국대사관 성원들 뜻바구니 진정  
만수대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15일 풍흉제 주조 성화

# 제23차 광명성절경축 백두산상국제회거축전 개막

제23차 광명성절경축 백두산상국제회거축전이 15일 평양에서 개막 되었다. 개막식이 진행되는 비상상태의 야에는 축전기발들이 나뉘고 있었다. 개막식장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자!》 등의 글발들이 그려져 대형기자들이 떠있었다. 《자주》, 《평화》, 《천선》이라는 글발들이 나뉘어있었다. 개막식에는 최대복자, 양형성동지, 로두철동지와 리영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비상행위회 위원장인 최광진제정상, 김일국 체육성 제1부상, 판계부장 일꾼들, 체육인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흥인읍 흥원중앙감시위원회 위원장을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김원환사무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비동로전국 연합대표단이 15일 평양에 도착 하였다. 비행장에서 김진국 해외동포

주체위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제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탄생 72돐 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뜻깊게 맞이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밝히신 전투적 구호따라 조국인민들이 온 나라에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고있는 벅찬 시기에 광명성절을 맞이한 우리 가슴 은 더욱 찬란한 꽃의 열매에 대한 신심과 락판으로 한없이 설레고있습니다.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뜻깊은 광명성절 에 즈음하여 전체 총련인민들과 제일동포들의 다함없는 충정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높은 뜻을 이어 주체 위업과 총련제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한 장군님은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로 백두 에서 개척된 주체위업을 백성의 한길로 이끄시며 한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빛내이신 걸출한 사상리론가, 탁월한 령도자, 회세의 정치선로이시였습니다.

어버이장군님의 인생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장그려 바치시어 조국정사에서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불세출의 위인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어 제국주의 반동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 시고 애국애민의 의지로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불패의 군 령과 군민대단결의 힘을 다져주시으로써 우리 조국과 인민 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였으며 주체 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 해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은 주체적인 제일조선인운동을 천리해안 으로 혁명하게 이끄시고 친애하시어 사료으로 제일동포들의 행복과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펼쳐주신 한없이 자애로운 스승이십니다.

해외교포운동의 독창적이고 백과전서적인 사상리론을 밝히 시어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령도해주시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쁨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제일동포들을 심려하시며 극진한 사랑과 믿음으로 총련인민들과 제일동포들이 애국 애국의 신감자, 계승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로서의 영예를 떨칠수 있도록 온갖 배려를 다 들리주시였습니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총련이 변화된 환경과 실정에 맞게 사업방향을 전환하여 새 시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동포군중을 폭넓게 묶어세워야 한다고 하시며 새 세기 제일조선인운동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갈 강령적임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성국가의 대문을 여는 조국과 더불어 총련에도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희망의 2012년에 함께 가자고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최상의 신임과 영예를 안겨주시었습니다.

민족최대의 명철인 광명성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총련 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해주고싶다고 하시며 총련 인민들과 제일동포들을 한심술로 안아 다투는 감사의 회멸과 보람을 안겨주시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한없는 경모심으로 하여 부풀어오르는 가슴을 억척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혼을 받들어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은 오늘 또 한번의 백두산출출위인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토록 분망하신 속에서도 총련이 나아가야 할 길을 활히 천명해주셨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의 백성의 보증을 마련한 불멸의 공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국의 부강번 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강력한 군사 적토대와 튼튼한 경제력토대를 마련해 주시어 회세의 천출행정자이며 창조와 건설의 영예이시라고 말하였다.

인민군대를 강화하는것을 선군혁명 의 첫째하는 중대사로 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전군김일성주의화를 군정주의 총지휘로 제시하시고 인 민군대를 완전무결한 수령의 군대, 필승불패의 혁명강군으로 키워 혁명 을 바쳐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대가라 새하늘 굽이치고 어버이장군님의 유혼을 받들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기이이 이룩해나갈 불타는 열기의 차남치고 있는대 대하여 언급하였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 에는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장 존엄한 시대의 폭풍우속에서 온갖 시련과 고행을 다 겪어 오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 로 전인민담의 혁명의 길을 헤쳐오시였다고 말하였다.

조국과 혁명의 운명과 그 전도에 대한 높은 사랑감과 책임감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의 천 년미래를 내다보시고 혁명 건설의 모든 문제를 예견성있게 전개하여 오 시였으며 후대들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시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 사상을 정립체계화하시고 선군정치 에 관한 리론과 선군혁명의 전략적 로선을 제시하신것은 우리 혁명의 사상리론적보물고기를 더욱 풍부히 하고

#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72돐경축 보고대회 및 보고회

각 도, 시, 군들과 련합기업소들에서 진행  
어려놓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높은 국제적권위와 뛰어난 정치실력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공화 국의 국제적지위와 영평력을 강화하 며 제국주의자들의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보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대대손손 높이 우러러모시고 어버이장군님 을 현실로 뵈고싶은 변명해나갈수 있는 만년거진을 마련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주체조선의 영성으로 언제나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시며 어버이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사는 백두산대국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흐를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 어버이장군님께서 마련하신 혁명의 만년거진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 발전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군대, 국가를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 불멸의 혁명업적을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과 군대, 국가 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전제없는 창조와 건설의 번영 기가 펼쳐져 마식령을 비롯한 온 나 라 곳곳에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할 는 거창한 창조물들,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환한한 대중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 체육봉사기지 들과 병원들, 살림집들이 일떠서고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새로운 기적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들은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 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하여 주체혁명위업, 선군 혁명위업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올해신년사 를 높이 받들고 농업부문과 건설부 문, 과학기술부문이 앞장에서 혁신의 불꽃을 추켜들고가자고 그 불꽃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 도 불꽃이 세차게 타번지자 하며 문 화건설에서도 큰결실을 내걸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시) 2월의 만수대

사무치는 그리움이  
충충 쌓이고 쌓인 만수대  
경도의 마음안고 오르니  
태양이 빛나는 언덕  
누리는 여기서 제일 밝아라

바람결도 숨쉬던 이 언덕  
평명성정의 환기가 파도쳐 설레이는  
만수대의 하늘가엔  
못 잊을 2월의 그날  
백두밀림을 물들이던 해돋이가 불러  
는가

생각도 뜨거워라  
소백수물소리 유정한 정일봉기슭  
고향집 그 트랙을 나서시여  
우리 장군님  
수령님의 넋을 꽃피워오신 자욱자욱  
천만리로 새겨진 이 강토

신경의 거리 햇빛 눈부신 창문을 보  
아도  
눈보라를 휘감아올리며 전진길을 내  
려라던  
성애불린 야전차 차창이 안겨오고  
피어지는 아침노을을 보아도  
강성변영의 새날을 불러  
평경에 떠오르던 모닥불이 아껴오누나

수령님 그토록 사랑하신 인민을 위해  
장군님 해쳐오신 헌신의 그 자욱으로  
이 땅의 길과 길이 이어지고  
그이께서 바쳐오신 로고의 그 낮과 밤이  
이 나라 전변의 역사로 빛나거니

이른새벽에도  
칼벼랑 굽이굽이 험준산밭 넘으시고  
깊은 밤에도

별빛아래 바람찬 들길을 걸으신분  
뜨고지는 해와 달도 인민들속에서!  
인생의 모든 보람과 희열도 인민들속  
에서!

수령님 바라신 장군의 넋엔  
한몸에 무겁게 앉으시고  
쉽없이 헤쳐가신 백색산행군걸이어  
자신의 온 심장이  
반만년의 숙망을 이루어주신 애국의  
한생이여

장군님 품에 영원히 안겨사는  
이 나라 아들딸들이  
2월의 만수대언덕에서  
불같은 헌신의 그 한평생을 우러른다  
백두산대국을 받들어올리신  
아버지의 천만자욱에 꽃송이를 엮  
는다

태양의 언덕  
만민의 흠모 넘쳐흐르는 만수대

# (시) 나는 봄의 거리를 걷는다

그리움으로 동이 뜬  
아침이 어차  
아침햇살이 감싸안는 거리에 나서니  
간절해지는 장군님 생각

우리에게 이 세상 만복을 안겨주  
시려  
한평생 야전렬차를 집삼아  
생신날에조차 눈보라길을 헤쳐가신  
장군님  
그날의 강행군길에 봄빛은 뜨거워

아버지의 환한 미소로 따뜻한 이 강산은  
장군님의 정과 사랑으로 우리 원수님  
인민의 만복을 꽃피우시는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 내 조국

백두의 위엄을 만대어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를 혁명의 전투에 높이 모시어  
태양의 력사는 영원히 끊이지고  
승리와 번영의 해와 달은 끝없이 흐르  
나니

일편단심 원수님만을 따르며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행복의 날과 달도 장군님과  
함께  
전사의 영광 빛나는  
혁명의 천만리로 장군님과 함께

아, 다가오는 세기와 세기들에  
태양조선 그 이름을 빛내주시며  
민족만대의 장창한 미래를 축복해주  
시며  
우리 장군님 거역히 서계시어라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햇빛같이 환히  
웃으시어라!

그처럼 바라시던 장군님의 그 리상이  
이 땅우에 꽃피날수록  
아버지의 그 영상 못 건디게 그리워  
이 가슴 젖어대는 이 땅의 봄이여

흰눈덮인 고향집추녀어호 흐르던 그  
봄빛  
황홀한 새 거리의 창가마다 어둠이  
깨기 웃는 아이들의 두눈에  
환희로 설레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고향집의 정과 사랑은 따스히 흘

려라  
정령 이 봄은  
장군님 뿌리신 행복의 씨앗들을  
우리 원수님 소중한 품에 안아  
정을 다해 사랑을 다해 가꿔가시는  
내 나라의 화창한 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장군님의 마음으로 인민을 품어안으시고  
조국땅우에 별처럼 새겨가시는  
원수님의 그 자욱자욱  
원수님의 불같은 그 심장이 꽃피운  
사랑의 봄이 아니더냐

그 사랑이 봄빛으로 흘러  
문명의 메추리로 솟아오른 마식령이  
은 나라에 스키바람을 불려오고  
철령아래 사파나무아지들엔  
파란 봄물이 오르고  
창천거리 우리 집엔  
햇빛이 별빛이 떠날줄 모르나니

세기와 세월을 넘어  
유구한 이 나라 역사에 강성부흥의 년  
...  
이 강산에 만복의 꿈을 꽃피우며  
더더욱 따스하고 눈부신  
2월의 봄이여

정일봉이 떠받든 봄하늘아래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길  
인민의 무명도원  
희한한 별천지가  
펼쳐지고 또 펼쳐지는  
내 나라 강산은 봄의 삼천리

아, 원수님 계시어  
이 땅에 무궁할 2월의 봄  
깨기 웃는 아이들의 두눈에  
환희로 설레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고향집의 정과 사랑은 따스히 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장군님께서는 자신을 믿  
듯이 우리 인민을 믿고 승리  
할 우리 조국의 앞날을 굳게  
믿으셨기에 언제나 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을 안으시고 조국과 인  
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걸고  
도 걸으셨습니다.》

무릇 사람들은 겨울이라고 하  
면 흰눈부터 먼저 생각한다. 한  
것은 꽃이 봄을 상징하고 열매  
가 가을을 상징한다면 흰눈송  
이, 하얀 실눈은 2월이 오면 흰  
눈덮인 백두산에서 솟아오른  
백두광명성을 우러르며 경도의  
정도로 가슴속이다.

백두광명성, 그 이름과 더불어  
이 우리의 눈앞에 아버지수령님  
의 숭엄한 모습이 가슴속깊게  
안겨온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50돐을  
맞으며 손수 명패를 드시고  
불멸의 송시 《광명성찬가》를  
한자한자 쓰신 아버지수령님,  
뜻깊은 그날 김정일동지가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가는  
령도자로서 인민들의 한결같은  
사랑, 칭송을 받고있는것은 대단  
히 기쁜 일이라고 하시며 그대  
서 자신께서는 인민들의 한결같은  
사랑을 담아 송시를 썼다고  
하신 아버지수령님의 가슴뜨거  
운 말씀을 우리는 정녕 잊지 못  
한다.

2월의 하얀 눈꽃을 보아도,  
눈덮인 수도의 거리를 거닐면서  
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  
없는 흠모의 정이 가슴속깊게  
안겨오사루는 그리움으로 가슴  
적시는 우리 인민이다.

돌이켜보면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이 쿠데에 이르고  
반공화국침략전쟁소동이 날로

계속 로골화되던 지난 세기 90  
년대 위대한 선군평화를 모시어  
적들과의 총포성없는 대결전에  
서 편전전승만을 펼쳐가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마루에 높  
이 솟은 정일봉을 우러러 얼마  
나 크나큰 환희와 격정에 휩싸  
여있었는가.

조국방방방곡곡에 인민의 행  
복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서고 희한한 선군정  
이 펼쳐질 때에도 천만군민은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위대한  
아버지를 높이 모시였기에 사회  
주의강성국가건설  
의 승리는 확  
정적이라는 철석  
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가지었다.

혁명의 전투에서 천만군민을  
이끄시고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치시며 선군조선의 휘황한 미  
래를 앞당겨오신 아버지장군님,  
꽃은 날, 함한 꽃이 마다하지  
않으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한  
현직지도의 길을 걸음있어 이  
가신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하  
기에 인민들은 별처럼 바다가 되  
고 쌓인것을 혁명 때를 장군님의  
한생의 업적 합치면 인민뿐이라  
고 그토록 절절히 노래하는것  
아닌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  
혁명의 밝은 앞길에 개척되  
고 행복한 오늘이 마련된것임을  
우리 인민은 언제나 진리로 안  
고 산다. 백두광명성 솟아오른  
력사의 2월 16일이 있어 우리  
인민은 오늘도 매일도 2월을  
영원한 봄이라고 긍지높이 노래  
한다.

본사기자 오은별

본사기자 오은별

# 만민의 절절한 그리움 뜨겁게 굽이치는 불멸의 꽃바다

## 주체의 영원한 태양을 모시여 우리 앞날 장창하다

### 제 18차 김정일화 축전장을 돌아보고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  
절을 맞으며 열린 제 18차  
김정일화축전은 아버지장군님  
에 대한 만민의 절절한 그리움  
다함없는 흠모심이 차넘치  
는 위인칭송의 꽃축전이다.



-인민봉사총국전시대에서-

축전장에서 우리와 만난 조  
선김정일화축전위원회  
의 한 일꾼이 이야기한것처럼  
《백두산대국의 장창한 앞날  
을 축복하여 더욱 밝게 피어  
난 김정일화》라는 주제로 진  
행되는 이번 축전은 조국의  
강성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  
하여, 세계자주화위영의 승리  
적전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만민의 한없는 정을 불멸의  
꽃바다에 뜨겁게 펼쳐 보이  
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장군님을 하늘처럼 믿  
고 살아온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심장에  
장군님은 민족의 아버지  
로, 우리 당의 총비서로 깊  
이 새겨져있으며 세상사람  
들도 그것을 공인하고있습  
니다.》

우리가 처음 들린 곳은 인  
민부귀부과 외무성의 전시대  
가 있는 중앙전시홀이었다.  
당기와 최고사령관의 펠  
릭스를 불멸의 꽃으로 형성하  
고 그아래에 아버지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선군시  
대의 선경들과 불멸추아의

현직지도에서 그이께서 리용  
하신 인민혁명사, 장군님의 인  
민사랑의 송로아래 펼쳐진 오  
늘의 이 희한한 현실을 우리  
장군님 보시던 얼마나 기뻐하  
셨을지 하는 생각이 북받쳐올  
라쉬어 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김정일화 만발한 전시대에  
올리는 《우리는 잊지 않  
으리》의 선물을 들으면서 필  
자의 락원, 사회주의선경을 펼쳐  
주시며 한평생 불멸불후의  
로고를 바치신 아버지장군  
님에 대한 그리움의 강정을 금  
치 못해 누구나 눈물을 흘렸  
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문수물놀이장, 룡라공예관,  
마식령스키장 등 내 조국의

자랑인 기념비적창조물들의  
모퉁이를 보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다시금  
비유게 되니 눈물이 절로  
내리며 격정을 터치는 그  
말을 들으며 우리는 장군님의  
혁명적투쟁의 세계, 의의  
의 세계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  
들을 다시금 되새기며 감  
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 어느 전시대에 가보아도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그리움  
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김일성총합대학전시대에  
서면 훌륭한 수영관을 선물로  
안겨주시고 여러차례나 대학을  
찾아다니며 세계일류대학으  
로 빛을 뿌리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  
과 은정에 대한 이야기, 상원  
세멘트연합기업소전시대에 가  
보면 기업소의 타전도 잡아주  
시고 명예지배인이 되시어 생  
산정성화에서 나서는 모든 문  
제를 풀어주신 한없이 고마운  
아버지사랑에 대한 이야기...

참으로 한평생을 애국의 한  
마음으로 불태우시며 끊임  
없는 애국의 신의의 정으로 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부강조국  
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해  
주시고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전진한국의 절절한 그리움이  
뜨겁게 흘러넘치는 제 18차  
김정일화축전장이었다.

김일성총합대학전시대에  
서면 훌륭한 수영관을 선물로  
안겨주시고 여러차례나 대학을  
찾아다니며 세계일류대학으  
로 빛을 뿌리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  
과 은정에 대한 이야기, 상원  
세멘트연합기업소전시대에 가  
보면 기업소의 타전도 잡아주  
시고 명예지배인이 되시어 생  
산정성화에서 나서는 모든 문  
제를 풀어주신 한없이 고마운  
아버지사랑에 대한 이야기...

참으로 한평생을 애국의 한  
마음으로 불태우시며 끊임  
없는 애국의 신의의 정으로 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부강조국  
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해  
주시고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전진한국의 절절한 그리움이  
뜨겁게 흘러넘치는 제 18차  
김정일화축전장이었다.

축전장을 찾았던 많은 참관  
자들이 감동받은 자들의 흥  
분된 심정을 그대로 적었다.

본사기자 백성근

본사기자 백성근

본사기자 한광명

본사기자 한광명

본사기자 한광명

본사기자 한광명

본사기자 한광명

본사기자 한광명

본사기자 한광명

본사기자 한광명

본사기자 한광명

본사기자 한광명

본사기자 한광명

본사기자 한광명

본사기자 한광명

본사기자 한광명

본사기자 한광명

본사기자 한광명

본사기자 한광명

본사기자 한광명

본사기자 한광명

본사기자 한광명